창사 63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정론 30년 품격 100년 30 뉴스의 중심 광주매일신문

제7930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음력 3월 12일)

외딴 섬 여객선 접안 "평생의 꿈 이뤘어요"

'어촌뉴딜' 전국 첫 준공 흑산 만재항 가보니

목포서 뱃길 5시간40분→2시간10분 단축…1일생활권 활짝
"이제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같아" 감격의 눈시울

22일 오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에서 열린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에 참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과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등 내빈들이 준공 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만재도에 79년간 살았지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섬과 섬, 육지를 잇는 연도교가 잇따라 개통되고 있지만 만재도 주민들은 여객선 접안이라는 '소박한 꿈'을 꿨고 오늘 결실을 맺었습니다."

만재도 주민 이양식(79)씨는 수십년간 바랐던 여객선 접안의 꿈이 이뤄진 현장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작은 섬에 살고 있어 소외의 세월을 보내왔지만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여객선 접안이 가능한 항구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어촌뉴딜300 사업 전국 첫 준공식이 열린 22일 오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만재항. 수십명의 주민들은 "평생 소원을 이루게 해줘 고맙다"며 밝은 표정으로 해양수산부·전남도 관계자들을 맞았다.

만재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1700년대 후 320년 만의 여객선 접안을 직접 본 주민들은 "이 곳이 만재도가 맞느냐"며 "작은 섬 주민도 소중한 국민이라는 마음을 갖게 해줘 감사드린다"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준공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만재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와 기념사·축사, 현장 시찰, 주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만재항은 2019년 어촌뉴딜300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접안시설 40m, 경사식 선착장 53m, 어구 보관 창고, 경관 산책길 정비 등이 추진됐다 2019 12월 착공해 15개월 만인 올해 3월 완공됐다. 총사업비는 77억3천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0%를 국비 지원받았다.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촬영지로 유명세를 떨친 만재도는 흑산도에서 45㎞ 떨어진 외딴 섬이다. 만재도에는 1996년 전기가 들어 왔고 2010년에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바다 한가운데에서 종선(작은 배)으로 갈아탄 뒤 섬에 들어가야 하는 열악한 곳이었다. 육지에서 뱃길로 가장 먼 길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어촌뉴딜 준공으로 목포에서 만재도까지 5시간40분 걸리던 뱃길은 직항 노선을 통해 2시간10분으로 3배 가까이 단축돼 목포까지 1일생활권 길이 열렸다.

주민 김은규(68·여)씨는 "작은 섬에 살고 있어 그동안 소외받고 있다는 마음이 컸지만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같다"며 "만재항은 정부의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이라고 활짝 웃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내년까지 전국 300개소 어촌·어항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밀착형 생활SOC 사업이다. 전남의 경우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을 기록하며 전국 250개소 중 32.8%인 82개소(총사업비 7천633억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어촌뉴딜 공모 마지막 해인 내년 사업에 전국 50개소 중 20개소(40%) 선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촌뉴딜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도 어촌·어항 재생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만재항 준공으로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어촌뉴딜 사업을 지속 추진, 어민들이 다양한 소득을 창출하고 편리하게 해상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만재항 준공은 해양 영토의 하나인 만재도를 가꾸고 지켜온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며 "그동안 소외받았던 섬 주민의 소득 증가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임후성 기자

'전라선 철도' 시속 350㎞로 달린다

5조 규모 고속철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수-익산간 1시간 주파…광주-나주 광역철도망도 포함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전라선 고속철도가 반영되면서 서울-여수간 이동 시간은 2시간 10분대까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공개한 계획안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라선은 호남선, 경부선과 같이 시속 350㎞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로 전환된다.

고속철도 사업이 완료되면 여수-익산간 1시간, 여수-서울 간 2시간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여수-익산 간은 1시간 37분, 여수-서울 간은 2시간 44분 소요된다.

그동안 전라선 고속전철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개통하면서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반쪽 고속철'로 전락했다.

총 5조여원이 투입될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완공되면 대한민국 남중권, 전남 동부권과 수도권을 잇는 호남선, 경부선과 같은 대량 고속 수송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2014년부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강호축 8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 여수·순천·광양 3개시 행정협의회, 전남·북 7개 시·군 KTX협의회, 여수·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 등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달 25일에는 국회 앞에서 김회재 의원 등 호남권 국회의원 9명이 공동 개최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주-나주간 광역철도망도 제4차 국가철도계획안에 반영됐다. 광주 상무역에서 남평, 혁신도시 나주역을 경유하는 총 27.6㎞ 구간으로 이동 시간은 81분에서 33분으로 줄어든다.

김영록 지사는 "전라선 고속전철이 고속철도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계획 계획은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5월)를 거쳐 오는 6월 확정 고시된다.

/김재정 기자

Today

김경수의 우리땅 '최초' 이야기 5면
광주신세계 현지법인 26주년 11면
김정훈 교수의 일본 작가 비평 14면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광주 연고 확정적"

이병훈 의원, 매튜 장 대표 면담

페퍼저축은행이 창단하는 여자배구단의 연고지가 광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페퍼저축은행 매튜 장 대표를 만나 "광주가 배구전용구장 등의 인프라가 탄탄하고 전국 최고의 배구열기를 가진 도시라는 점과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광주를 연고지로 여자배구단을 창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튜 장 대표는 이용섭 광주시장, 이병훈·민형배 국회의원 등의 끈질긴 설득과 지원 약속에 따라 광주를 연고지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10월 늘푸른저축은행을 인수해 탄생했으며, 인수 당시 1천900억 원이던 자산이 현재는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국내 3위의 저축은행이다. 주된 영업지는 경기, 인천지역이다.

그간 페퍼저축은행은 여자배구단 창단 과정에서 성남을 연고지로 하고자 했으나, 결국 지역정치권과 광주시의 설득으로 광주를 연고지로 확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매튜 장 대표가 성남시와 경기장 사용 문제 등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광주 연고지 문제를 결론 내고 발표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작지만 강한 미디어!
광주매일TV

곡성군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가지?

집나가면 '곡성'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NAVER 곡성여행 검색